

경제에 활력을,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문명과 문화의 교류·전파 통로로서 한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로는 전체 수송량의 90% 이상을 분담하면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교통량은 도로 교통난을 심화시켜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애로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고, 곧 다가올 21세기에 대처할 착실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경제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 차원에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주력하면서, 물류난 해소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단, 항만 배후 수송도로와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국도확장 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중심의 도로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개선사업,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도로이용 불편신고 센터」제도를 활성화하고, 「도로건설사후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국토,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튼튼하고 편리하며, 빠른 도로」정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분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교부 도로심의관 최 길 대